

진도 군내농공단지 농수산물식품블럭 10년만에 분양 완료

9 필지 식·음료품, 김 가공 공장·전복 치패 사료 기업 등 9곳 등지 입주 기업들, 주민 우선 채용 등 약속...투자·고용 창출 효과 기대

진도군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내농공단지 농수산물식품블럭 분양이 산단조성 10여 년만에 완료됐다.

진도군은 군내면 녹진리 군내농공단지 농수산물식품블럭의 분양을 최근 (주)우주와의 계약을 마지막으로 분양대상 9필지 모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도 군내농공단지 농수산물식품블럭은 지난 2015년 26만141㎡의 부지에 총 177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입주계약 기업은 친환경 농공단지에 걸맞은 식·음료품 7개 기업, 김 가공 공장 1개 기업, 전복 치패 사료 기업 1개 등이다.

현재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가동 중인 기업은 지난 2018년도 가동을 시작한 (주)시골김치를 포함

한 3개 기업이며, 최근 계약한 기업 등 나머지 6개 기업은 올해 말 공장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 분양 완료된 식품단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인구유입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10억원의 투자금액과 약 300명의 생산 유발 효과는 세원 확충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그동안 최적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모색하며 유망 중소기업과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각지를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아왔다.

특히 전국에 급격하게 늘어난 농공단지 중 분양률 50% 미만이 대다수인 가운데 대한민국의 끝자

락에 있는 진도군의 '군내농공단지 농수산물식품블럭 100% 분양'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불과 1년 만에 2만 7661㎡(투자액 약 200억원)에 대해 5개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입주 기업들은 공장 건축 때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역 자재·장비 구매, 신규 고용 시 지역주민 50% 이상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다.

어업회사법인 해남전복유통 이흥진 대표는 "진도군 투자유치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과 행정적 지원 약속에 따라 농공단지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복 치패 제조 업체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서정환베이스볼타운, 고려중공업 정상화, 솔비치 진도 2단계 착공, 진도-제주 선박 신규 취항, 유명 브랜드 호텔 신축 등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진도군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발굴 후 저렴한 분양가, 해수 공급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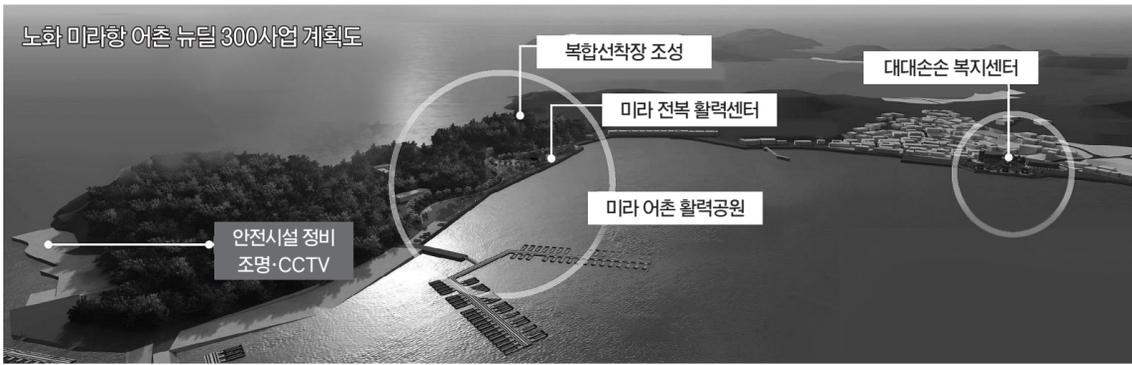


진도 군내농공단지.

설 연비 등 단지의 우수성과 신속한 행정적 지원이 더해져 얻은 신뢰가 쌓여 큰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 많은 기업이 진도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어촌 뉴딜' 본격화...완도 노화 미라향 확 바뀐다



102억원 투입 인프라 조성...환경 개선·주민 소득 증대 기대

완도군이 총 102억원이 투입되는 노화 미라향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화 미라향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월 기본계획에 이어 지난 7월 시행계획까지 마무리했다.

완도군은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해 미라 전

복활력센터, 대대손손 복지센터, 미라 어촌 활력공원, 복합 선착장 조성, 동천항 기항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선착장 등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전복 주산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복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촌마을의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 주도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했다"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기 좋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 8味 한곳에' 대흥사로 맛여행 오세요

자연 버섯탕 등 먹거리촌 조성 추석 전까지 위생 등 컨설팅

해남군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흥사 권역 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흥사 권역에는 총 28개의 일반 음식점이 있으며, 해남8미로 꼽히는 보리잡밥, 산채 비빔밥을 비롯해 자연 버섯탕, 돈가스 등 한식과 양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먹거리촌이 형성돼 있다.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권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통일된 찬기, 위생복과 위생모, 앞치마를 제작해 보급했다.

먹거리 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인 '미미원정대'를 통해 음식점 홍보도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대흥사의 특성화된 먹거리도 널리 알리고 있다.

대흥사권 내 19개 식당이 혼잡당당 식당으로 지정돼 1인 관광객들도 편히 방문해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해충 방제, 위생살균도 실시한다.



대흥사권 음식점 업주들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미식관광 명소 거듭날 것을 결의하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까지 위생 개선 컨설팅을 추진해 주방, 조리장 등 위생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흥사권 음식점 업주들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친절과 맛까지 더해 해남의 대표적인 미식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흥사 권역 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 미식관광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을 기대한다"며 "미식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가리비·전복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완도군, 다음달 6일까지

완도군이 오는 9월 6일까지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본 품목을 선정 한 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1일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다.

지급 대상자는 대상 품목(전복, 가리비)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지원금은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해당 품목의 행사 계약(면허) 또는 육상 양식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인마다 직불금 수령 금액이 다르다.

완도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전복.

무안군승달장학회, 장학생 204명 선발

다음달 6일까지 신청...장학금 2억 1400만원

재단법인 무안군승달장학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1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승달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신청 요건은 공고일인 13일 기준 부모 모두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자녀인 경우 가능하다.

선발 규모는 성적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 저소득, 예체능, 다자녀가정(중·고등학생, 대학생), 체육 꿈나무,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이 지원된다. 총 장학금 규모는 약 2억 1400만원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기존과 달리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지원해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거비 분야의 장학금을 신설해 광주·전남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장학회는 분야별로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 인재육성 줄잇는 장학금 기탁 행렬

군민·기업 등 누적 115억원

재단법인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희수)는 최근 군민과 단체로부터 장학금 3400만원을 기탁받아 누적 115억원이 모였다고 19일 밝혔다.

장학회에 따르면 7월과 8월 두 달간 (주)에이치건설 200만원, 조은컴퓨터 이일교대표 100만원, 고군면 김철선 50만원,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 10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100만원, 씨월드고속웨디(주) 2000만원 등 장학금 기탁이 이어졌다.

기탁자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진도의 미래 인재들에게 작은 보탬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는 뜻을 장학회에 전달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장학금 247억을 조성해 장학금 41억원, 교육경비 55억원, 명문고 18억원, 학교시설지원사업 17억원 등 총 131억원을 지원했다.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장학금을 기탁한 군민과 기업의 뜻에 맞게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김대중·장보고 리더십 배우기

목포대 호남문화연구소, 23일~10월26일 강좌·답사

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는 김대중 탄생 100년을 맞아 '김대중·장보고 글로벌 정신과 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2024 김대중·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목포시 삼학도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사)장보고글로벌재단, 국립목포대 도서관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아카데미의 개강식은 오는 23일 오후 7시에 열린다. 개강식에는 강봉룡 소장의 개회사,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환영사, 박홍률 목포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의 축사, 그리고 박지연 의원의 '김대중 대통령과 장보고 대사' 개강 특강이 있다.

이어 오는 29일 목포대 강봉룡 사학과 교수의 21세기 제3차 청해진 시대의 개막과 장보고·김대중 등 오는 10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8차례 강좌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26일에는 이경아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인술해 목포와 완도 등을 답사하는 것으로 아카데미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그동안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와 '목포 장보고 아카데미'는 별도로 진행돼 왔으나 서남권을 대표하는 두 위인의 역사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대중·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로 통합 운영하게 됐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강봉룡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장보고 대사는 섬에서 태어나 지역(local)에서 세계(global)로 나아간 글로벌(glocal)의 대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두 분을 오늘날 지역발전의 화두인 '글로벌'의 역사적 사표로 삼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향한 서남권 미래 발전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 아카데미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도기박물관, 하반기 수강생 20명 모집

흙을 주무르고 작품을 빚는 생활도예교실이 열린다. 영암도기박물관이 하반기 '생활도예' 기초반 교육 수강생 20명을 20~23일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피고 구립 도기의 전통을 잇도록 마련됐다.

영암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시간은 9

~11월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다. 가마 소성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고, 교육 안내는 영암도기박물관(061-470-6855)에서 한다.

박혜영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생활도예 교실에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선 기자 jbh@kwangju.co.kr